



▶ 태안반도 기름유출봉사현장에서

왕집리

평신도 신학 / 전도신학 - 교육 목사 문병호

하나님 나라 사람들 / 중국인 복음화의 기수 - 중국어예배 김성 전도사

가정사역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특집 영국체험기 / 영국을 체험하며…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친환경 먹거리 쇼핑인내

2008년
02 월호



섬김의 본이 된신 분 - 이장수 윤퇴장로

정기성 집사님은 오랜 기도 끝에

이장수 장로님이 칭찬받아 마땅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항상 웃으며 성도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의 본을 보여 주신 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독서 공간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뤄주신 이장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 주고 내일을 준비하게 도와주시는 소중한 분입니다.

교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도서관이 문을 열 수 있었던 것도 장로님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장로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시는 모습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박병수 기자

Contents

- 2 칭찬합시다 / 섬김의 본이 되신 분 – 이장수 장로
- 4 출애굽단상 / 주께로
- 5 평신도 신학 / 전도신학
- 8 독자투고
 – 몽골이 발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 9 전도이야기 / 소그룹 속에 운행하신 주님의 손
- 12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
 – 중국인 복음화의 기수 / 중국어예배 김성 전도사
- 14 일상의 작은 그림 / 친구
- 15 가정사역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21 특집 영국체험기 / 영국을 체험하며…
- 27 100주년 특집 I / 삼행시 짓기 대회
- 30 선교사 편지 / 북방에서 부는 주님의 바람
- 32 독서감상문 / 한 아이
- 34 우리집 작은 생각, 큰 행복
 –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친환경 먹거리 쇼핑안내
- 36 가정예배
- 40 冊이랑 樂
- 41 기획 / 2007년도 왕십리교회 10대뉴스 다사다난했던
 왕십리교회, 교인들
- 42 왕십리 이모저모



발행인 : 오치용 목사 주필 : 배종호 장로 지도 : 박충권 목사
주 간 : 이종훈 집사 기획 : 장숙현 집사
취 재 : 박병수 집사(팀장), 임현석 집사, 지은정 집사, 문승환, 서주은
교 정 : 최지영 집사(팀장), 김영희 집사, 신재옥
디자인 : 김현정, 최영주
일러스트 : 유태우 집사
객원기자 : 서명은 집사, 이수정, 이윤혜, 유정림



대한예수교
장로회 왕십리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304
FAX : 02-2292-0309

편집 : 출판위원회 왕십리신문사 (출판실 : 02-2295-0114)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왕십리교회 (☎ : 02-2299-1011)
인쇄 및 제작 :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85-4109)

주께로



오치용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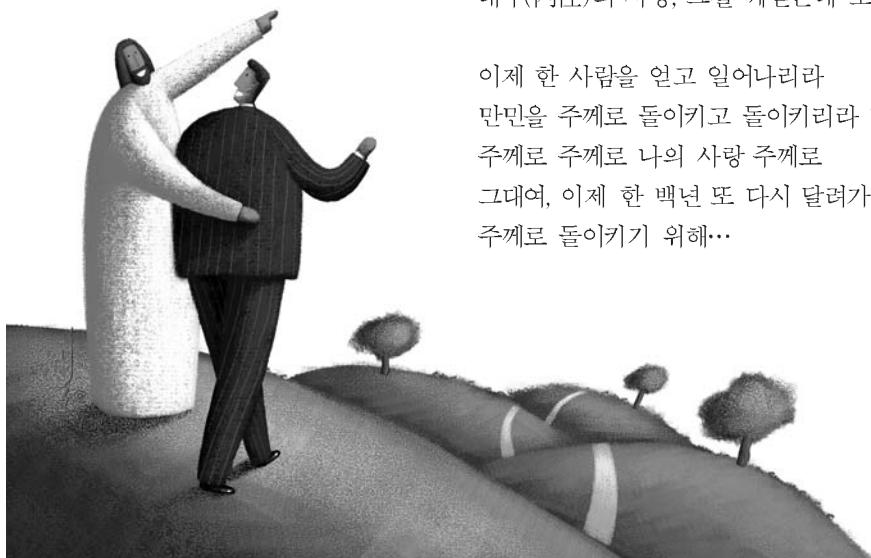
한 밤에 하늘을 여는 초승달빛
한 낮에 중심을 비추어오는 세털구름 속의 햇살
한 백년후 새롭게 일곱날의 영광을 밝히는 교회, 그들

다 주께로
돌이키며 돌아킨다.
시작보다 더 좋은 더 밝은 더함의 백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돌아온다 우리의 그 사랑스러운 분들

한 사람을 얻으면 다 얻겠는데
한 사람을 주시면 다 주께로 인도하려는데
그 한 사람 내 속에 있는듯 아닌듯
바라다가 알게 된 한 몸

그리스도, 그 분의 새로운 백년여로(旅路)구나
나 혼자인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을 얻었네
마음 속에 깊이 있는 분을 왜 밖에서만 찾았을까
내주(内住)의 사랑, 그걸 깨닫는데 또 백년이 걸릴까

이제 한 사람을 얻고 일어나리라
만민을 주께로 돌이키고 돌이키리라 나도 돌아오면서
주께로 주께로 나의 사랑 주께로
그대여, 이제 한 백년 또 다시 달려가려네 온 땅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전도신학



문병호 교육목사

I. 전도의 의미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택함 받은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 a. 전도는 택함 받은 백성을 찾아가는 일이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듣든지 들지 않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 b. 전도는 구원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소식이다. 복음은 그 자체로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한다.
- c.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수를 더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데 있다. 믿음의 백성은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로 태어난다. 성령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통치이며, 성령님의 임재가 확산될수록 하나님의 통치도 확산된다.
- d.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전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이루어진다.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전도할 수 있으며, 오직 성령님이 임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는다. 오직 성령님으로 시작하고 성령님으로 마친다.
- e. 전도는 주의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된 성도들이 연합한 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자라간다. 교회는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와 같고, 더 자란 사람에게는 학교와 같다. 전도는 주의 백성이 마땅히 있을 곳으로 초대하는 일이다.

II. 전도자의 자격

전도자는 주님의 은혜로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 받음으로써 다시 살아나 그 은혜를 되갚는 삶을 사는 제자여야 한다.

a. 거듭난 사람만이 전도자가 된다. 비신자가 전도에 사용되기도 하나, 전도자는 될 수 없다. 일만 달란트 빚진 것을 그저 탕감 받았다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만이 전도자가 된다.

b. 제자만이 전도자가 된다. 전도는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사람이, 후사로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는 삶을 사는 마음으로 그의 남은 고난을 잔에 채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그저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와는 달리,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세례를 주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III. 전도자의 본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경건한 일꾼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중거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전도자로 쓰신다.

a. 전도자는 먼저 일꾼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지 기로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하며 소망의 인내로 담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참된 전도자는 일로 자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가운데 일한다.

b. 전도자는 경건해야 한다. 경건은 위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의를 전해 받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받은 대로 위로 올려 드리는 성도의 삶을 의미한다. 경건한 삶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는 교제를 하며, 기도에 힘쓰는 삶을 핵심으로 한다.

c. 전도자는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해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 오직 십자가가 지혜요, 권능이요, 높음이요, 부요함이 되어야 한다. 오직 십자가만을 영생의 길로 알고 부끄러움이 없이 전해야 한다.

d. 전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고, 그를 경배하고 친양하며 그를 기뻐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자신에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갇힌다.

e. 전도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하여서 이웃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 주는 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삼으신다.

IV. 전도자의 전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전하고, 그 열매의 때를 기다린다.



a.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하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같은 섭리로 택하신 백성을 품에 안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 자신의 빛 탕감 받은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감사로 충만한 사람만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 오직 고백의 분량만큼 전하게 된다.

b. 말씀으로 무장하라.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되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으니, 전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말씀과 성령님의 검으로만 심령과 골수를 쪼개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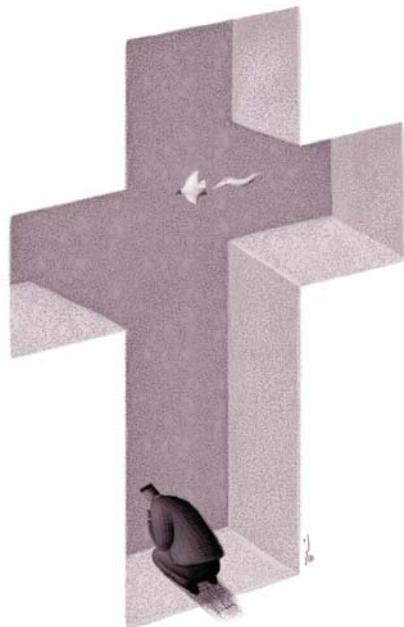
c.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마다 다 응답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성도의 기도 가운데 이루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전도는 기도의 응답 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d. 성령님에 취하여 전하라. 전도는 성령님께서 친히 하신다. 친히 준비하시고, 여건을 마련하시고,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 자체로 감사해야 한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님의 조명과 감화로 되는 것이다.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의 장을 펼치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사용하신다.

e. 주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제 씨를 뿌린 자는 열매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고 물과 빛과 양분이 차면 열매를 맺게 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의 심중에 있다.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 오직 인내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시 89:1).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28-29). 



안녕하십니까

왕십리지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바야르체체이라고 합니다. 저는 27살이고 남편과 딸과 같이 교회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3일은 예쁜 딸이 태어난 날입니다. 이름은 예지라고 합니다. 딸 이름은 몽골예배를 지도하시는 박동하 목사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우리 딸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2005년 어머니 친구 되시는 알탕토야 아주머니가 저한테 복음을 전해 줘 처음으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온 후 이 집사님이란 분이 저한테 한국에 대해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구주 예수님을 소개해주셔서 구원의 삶을 새로 시작하게 해주신 아주 고마운 어머니 같은 분입니다.

몽골이 발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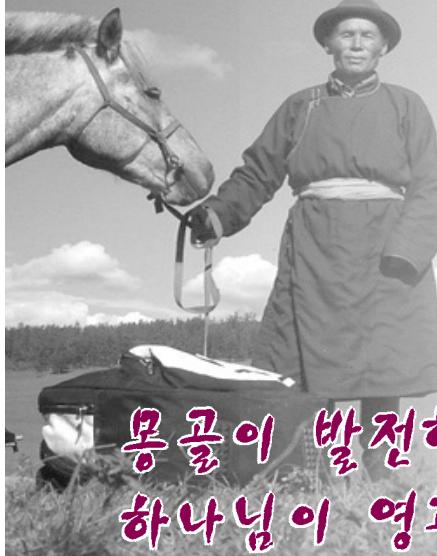
바야르 체체 자매

그리고 이 집사님의 도움과 박동하 목사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격려를 들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저의 앞날들을 주님이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실 겁니다.

11월 4일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과 박동하 목사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때문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본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못 할 것 같았습니다. 오직 할 수 있을것이라는 믿음뿐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도 자랐고 이렇게 세례도 받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같은 고향인 몽골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을 많이 알려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겁니다.

제가 몽골을 구원하는 데에 힘쓸 것입니다. 몽골이 발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나의 소망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



소그룹 속에 운행 하신 주님의 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니 (요15:5)

박상영 목사

소그룹을 통해 뻗어가는 영적 뿌리

교회는 소그룹을 통하여 점점 일본인 사회에 뿌리를 박게 되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일본의 토양에서 생산적인 교회로 일본을 복음화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작을 지라도 지금까지의 교회가 물병에 담아놓은 양파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교회는 일본이라는 밭에 심은 파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병에 심은 양파는 아무리 성장해도 한 뿌리지만 땅에 심은 파는 계속적으로 가는 파를 치며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도기의 단계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영적공동체에 역사하시고 계심을 느꼈다.

병을 낫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먼저 질병의 치유가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났다. 대부분의 주재원들과 그의 가족들은 학식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고국을 떠나서 오랜 시간을 해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충격이나 소외의식 때문에 질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이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점점 치유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불면증이나 허리와 목의 디스크 등이었다. 치유를 위해 특별히 한 것은 없었지만 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기도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나눔이 있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복음에 참여한 축복과 타락의 딜레마

특별히 재일교포 분 중에 P 집사님이 계셨는데 일제시대 소녀였던 시절 일본에 건너와 결혼하고 성공한 가정이었다. 처녀시절부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

자신의 가정을 예배 처소로 내놓아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던 귀한 가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셨다. 자녀들이 일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아들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 딸들 중에는 남편이 종합병원의 원장이시고 혹은 여러 개의 빼놓고를 소유한 딸도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 축복과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침체된 부분이 있었다. 많은 물질적 축복이 오히려 자신과 자녀들이 주님과 교회를 멀리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가정을 사랑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 가정에 덮친 시련이었다.

우울병의 치유

P 집사님의 따님 중 한 분이 심한 정신 분열과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유를 알아본즉 남편과 사랑하는 딸을 일주일 간격으로 잃고 난 후에 심한 영적인 쇼크를 받은 것이다. 낙심하고 있는 P 집사님에게 나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제안했다. P 집사님은 흔쾌히 응하였다. P 집사님 댁에서 있었던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주님은 그 대속의 사랑을 그 가정에 크게 부어 주셨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 따님은 점점 회복하기 시작하여 거의 완쾌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주님은 우울병을 치유하여 주신 것이다. P 집사님 역시 회개하며 옛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 나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P 집사님은 혼자살고 있던 자신의 큰 저택을 교회 예배처소로 눈물을 흘리며 헌물하였다.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충만과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선교현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부족함이 생기고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낙심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수도 있다. 마치 물위를 거닐다 파도를 보고 겁에 질려 파도 속에 빠져 들어간 베드로처럼. 특별히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선교지 현실을 생각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절망의 뒷을 놓는 것을 본다.

절망중의 신음

어떤 해의 일이었다. 연 말이 되어서 크리스마스가 가까왔다고 기억이 된다. 교회는 새로운 건물에 들어가서 부흥의 물결이 일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세와 여러 가지 세금을 생각할 때에 약 1000만 원 정도의 밀린 결산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나는 이 금액을 후원교회들에게 요청한다고 해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결되더라도 바다를 넘어 언제 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나는 혼자 꿈꾸 잊고 있었지만 해결방법은 없었다. 주님 이 금액을 해결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라기보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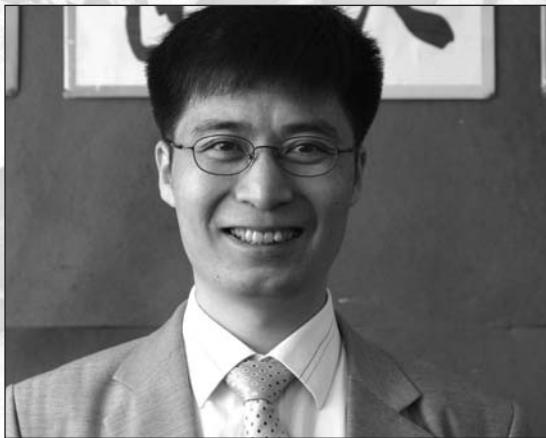
우유 통에 넣어주신 주님

어느 날 이었다. 아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다. 밤 12시가 가까웠다고 생각된다. 현관문에서 떨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피곤하여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려 일어난 아내가 현관의 우유박스를 열어 보더니 놀라서 봉투를 들고 나에게 달려왔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그 봉투를 받았다. 봉투의 표지에는 힘 있는 글씨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십일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추수감사 얼마 성탄헌금 얼마… 총액은 한화로 천만 원 정도였다. 주님은 원하였던 천만원을 생각지도 않은 우유 통을 통하여 넣어 주신 것이다.

소그룹을 통해 주신 크리스마스 선물

몇 년이 지나 알게 된 일이다. 한 소그룹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그것은 그 소그룹을 하는 성도님에게 온 전화였다. 그 전화도 몇 년 만에 한 전화였다. 물론 그는 그때 그 집에서 성경공부 하는 줄을 전혀 몰랐었다. 소그룹을 하는 그 성도님은 기뻐서 전도하기 위해 그분을 그 소그룹에 초청했다. 그 후 전화를 건 Y상은 소그룹에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Y상은 나중에 소그룹에 사랑이 넘치게 되었을 때 나에게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Y상은 약간의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시험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교회를 쉬게 되었다. 그러나 Y상은 신앙 양심상 그 하지 못한 현금을 전부 모아두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어느 곳에 현금을 할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교회 앞을 지나는데 성령께서 저 교회에 현금하라는 인도를 하였다고 한다. Y상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게 하기위하여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와서 우유 통에 그 현금을 하고 갔던 것이다. 나중에 그는 우리 교회 교인이 되었고 중국에 아름다운 지점을 개설하는 축복을 누렸다. 무엇보다도 Y상은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회복하였다. 모든 것이 소그룹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 





중국인 복음화의 기수

중국어예배 김성전도사

—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위치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1991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골교회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1994~1995년에 하얼빈 목양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탈북자 사역과 농촌목회를 하다가 2004년 3월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교단신학교인 S신학교에 편입하여 2005년 겨울에 졸업하고 2006년 총회신학원에 입학을 했고 지금까지 학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송우교회 중국어 예배 담당 전도사로 부름을 받아 2006년 7월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휴학을 하고 귀국하기 위해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누리교회 중국어 예배에서 봉사하던 전도사가 갑작스럽게 귀국을 하면서 급하게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교단 문제도 걸려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판단하고 응했습니다.

사역하는 동안에 왕십리교회에서 중국어사역을 하시던 최태범 목사님께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 연임할 사역자가 필요하다고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역 조건을 떠나 가장 나를 필요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에 응하여 왕십리교회 중국어 예배에 와

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고 계신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5월까지 매주 출석인원이 20명 미만이었다가 6~8월까지 평균 25명 수준이 되었으며 9월부터 현재까지 3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3월부터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면서 제일 먼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찬양팀을 구성했습니다. 찬양리더 5명을 세우고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 25분 동안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소그룹 사역의 재구성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소그룹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구원의 확신단계, 건강한 그리스도인 양성 단계, 제자화 단계, 사역자 훈련단계로 나누어서 내면화에 타깃을 두었습니다. 현재 중국어 예배의 상황에 맞추어 전체 소그룹 사역을 1단계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소그룹 교재를 만들어 교육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 중국인들과 예배드리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중국어 예배는 항상 잔치입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제외하고 그 외에 모든 예배가 항상 기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



장 기뻤던 예배라면 이번 주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모든 중국인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와 같이 보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인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은혜 받을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 중국이란 나라에 대한 선교 계획은?

아직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 기억에 남는 중국인이 있습니까?

제가 부임한지 거의 한 달 되었을 때 여학생 4명이 방 구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해서 3일간 다니면서 집을 찾아 주고 이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는 그 날 저녁에 주인집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하여 겨우 설득을 시켰습니다.

3일 후에 여학생들에게 또 연락 왔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 터져 방에 물이 차서 장판까지 물에 떠 버렸다는 것입니다. 급히 주인에게 연락해서 일주일이 걸려 방을 뜯

고 배관을 다시 했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들이 중국어 예배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심방을 갔더니 모두 피해 버렸어요. 전화로 몇 번 연락을 했는데 받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예배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방을 찾아 주지 못해서 그들이 고생을 했다는 것을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중국인들이 전도사를 목사라고 함)가 찾아주면 좀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는 실망감을 준 것 때문에 미안해서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 향후 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왕십리교회가 저를 늘 인정해 주시고 늘 협력해주시면 2013년까지 중국어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랑의 나라 왕십리교회'라는 이미지를 중국어 예배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왕십리교회의 비전인 '충만한 예배, 최선의 교육, 출애굽 선교, 은혜로운 봉사'에 따라 예배와 교육과 선교를 핵심 가치로 삼아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향후 2013년까지 12명의 평생사역자와 70명의 리더를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박병수 기자



친구

지 소영

보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어제 밤,
세정거장이나 되는 거리를
한걸음에 달려온 친구는

장마철
별 하나 안 보이는 하늘이
꼭자기 맘 같다며
놀이터 그네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 두 방울 빗방울이 떨어지자
그제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온
또 다른 친구는
나는 바보라며
나는 바보라며
그 말만 수 없이 반복하다
고맙다며 정말 고맙다며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바보처럼
술 한 잔도 못 마신다고
그래서 재미가 없다고

자주 놀려대더니
오늘...
정말 바보는
자기였다고 말합니다.

먼 길을 달려오고는
전화를 걸어놓고는
별로 꺼내놓은 말도 없으면서

이런 말은 아무한테도 못한다며
역시 친구밖에 없다며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위로는 거창한 데
있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돌아가는 뒷모습 바라보는 제가
더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걸
친구들은 아마도 모를 겁니다.
이젠 저도 먼저 찾아가고
저 전화를 걸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될 텐니까요.

아버지학교 후기

주님! 제가 아버지 입니다.



장 윤 기 (집사)

아버지! 얼마나 가볍게 부르던 흔한 말인가. “아비 됨은 쉬워도 아버지 노릇 하기는 어렵다”는 문장에 담긴 의미와 깊이를 헤아리는 것은 나의 오랜 숙제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두 아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아버지일까?”하는 고민으로 주변 목사님과 상담하며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아버지학교에 대하여 듣고 언젠가는 꼭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은 지 10여 년 만에 교회 추천과 지원으로 등록하게 됨을 하나님과 교회와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아버지학교의 모습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했다. 또 엄숙하면서도 여유롭고 스텝들의 협조와 섬김과 경건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개강 첫날 시작된 선서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를 낮은 톤으로 점점 강하게 세 번을 외치는 것이었다. 그 외침은 나와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있는 의무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고 던져버릴 수 없는 ‘아버지’라는 무게를 향한 절규였다. 또한 소친하신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불효에 대한 후회와 키워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외침이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항상 아버지임을 상기시켜 주고, 지금까지 느슨해지고 때론 무책임했던 마음과 행동들을 뉘우치면서 아버지의 사명을 되새기게 하는 경종이기도 했다.

강단에 올라선 강사의 말 한마디는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등을 보고 자란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말을 듣자 지금까지 두 아이에게 “그리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라며 수없이 가르쳤어도 효과가 없던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사랑의 언어와 행동 표현에 인색했던 유교적 관습에 물든 아버지의 영향으로 사랑의 표현을 잘 알지 못했던 나는 두 자녀를 키우는데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전문 교역자들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또 아버지학교를 다니면서 참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것이고 올바른 사랑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답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되심을 넘어서 아버지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아름다운 아버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때까지 아버지학교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아버지학교는 내 안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정 왕 진
집사

우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주신 왕십리교회와 5주간 은혜의 용광로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헌신적으로 섬겨주셨던 조장님과 스텝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학교가 있다고 하기에 어차피 받을 교육이라면 기회가 됐을 때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소박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주에 입구부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스텝분들이 밝은 웃음을 지으며 허리를 굽히시고 안내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가족을 소개할 때 “사랑하는 아내”로 시작하는 것들이 굉장히 쑥스러웠습니다. 또한 다섯 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조장님, 처음 봤지만 친형제처럼 따뜻한 조원들,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 개의치 않고 나누는 진실성, 탁월한 강의와 영상자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간증, 우리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편지 숙제, 교육 내내 “사랑한다”를 말하는 사랑 표현, 가슴의 심장소리를 느낄 수 있는 허깅 등 정말 색다르고 소중한 시간이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성,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성을 공부하면서 ‘제가 잘 살아야겠구나’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며, 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어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제게 이제 비전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주님과 식구들 앞에 바로 살아 믿음의 든든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성실히 일하고 교회 잘 다니면 되겠지, 했던 막연한 생각들이 얼마나 안일한 태도였는지 교육을 통해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 하나님에게 귀하게 사용되는 가정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자기 전 아이들과 아내를 축복하고 “사랑 한다” 말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구호로 시작한 아버지 학교. 우리 아버지가 변하면 작게는 가정이, 더 나아가 사회와 이 나라가 삽니다.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학교 꼭 가입하세요. 정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만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홍성현 형제

저는 아버지학교를 왕십리교회 장년1부 모임의 광고 시간에 처음 들게 됐습니다. 선착순으로 등록비의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해도 저와는 상관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교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인데 무료도 아니고 10만원씩이나 하니, 무료에 길들여진 저에게 5만원이란 금액 역시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간곡한 권유도 있었고,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등록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아버지학교에 갔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와 직장에서 모인 형제들과 같은 조가 되었고, 아버지학교 조 구호와 포스터도 작성했습니다. 아버지학교를 접한 경로도 다양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통하여 알게 됐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형제도 있었고, 거리에 붙은 광고물을 보고 등록한 믿지 않은 형제도 있었습니다. 좋은 남편, 아버지가 되려고 스스로 등

록한 형제들에 비해서 전 너무 작아보였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한 강의, 나눔, 간증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님의 간증은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로 감동이었습니다. 난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첫째 날,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길기만 했던 다섯 시간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습니다. 비록 5만원을 내고 등록했지만 10만원을 지불했어도 아깝지 않았을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이다 보니 매주 숙제도 있습니다. 매일 아내, 자녀와 허깅하기, 축복 기도 해 주기, 아버지에게 편지 쓰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스무 가지 적기 등, 과제를 하면서 점점 변해가는 나를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떻게 모였건 5주 만 지나면 모두 좋은 아버지들이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니 남편들, 아버지들도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에서 변화되어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그리고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에 충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윤찬식 집사

먼저 토요일 저녁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버지 학교를 등록하고 아내와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아내 다음으로 사랑하는 친구의 부탁과 그의 가정을 위해 그래 한번 희생하자는 마음으로 등록하고 첫모임에서 나의 아버지와 우리 가정 또한 나 개인의 생각을 다시 한 번 가다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임 셋째모임 넷째 모임 마치고 속초를 내려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길에 불빛하나와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우리가족은 나를 어둠에서 건져주는 작은 불빛이 아닐까? 주님은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겠지요. 남들은 반대로 생각하겠지만 말입니다.

매주 내주는 숙제인 아버님께 편지를 쓰고 난 후 어머니가 서운해 하셨습니다. 키워준 어머니에게는 편지 쓰는 숙제가 없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받아보고 글씨를 알아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아이들은 편지를 보지 못했지만 즐거워할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젊은 나이에 아버지 학교를 마치는 뿐 듯함이 몰려옵니다. 남들보다 적어도 10년은 앞서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남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조장과 많은 스텝 형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삶을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다. 함께 해 준 우리 같은 조 형제님들 사랑하고 꼭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서로 간에 후회가 아닌 사랑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신동식 형제

먼저 문병호 목사님의 은혜와 제 아내의 사랑으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 학교에 입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왕십리교회와 오치용 담임목사님, 문병호 목사님, 그리고 장년1부의 형제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아버지학교를 신청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와의 슬픈 지난날들과 고통의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에 서로가 병든 마음을 치유하려고 결혼상담소에서 12주 동안 교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마음을 위로하며 새로운 삶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학교를 아직 마음의 치유가 다 아물지 않은 상태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미약함 속에서 우리 가족 간의 화합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다시금 결속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질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추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학교의 1주차를 보내면서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을 용서의 편지에 담고 보니 하나님 품에서 편안하게 계실 것 같은 아버지의 얼굴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서 마음이 한결 평안합니다.

더불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운 내 마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였던 마음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아내와 아이들에게 허깅(안아주기)과 축복기도로 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2주차의 아버지의 남성상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군의 왕보다는 여진 왕처럼, 비겁한 전사보다는 부드러운 전사처럼, 위선자보다는 참된 스승처럼, 배신자보다는 다정한 친구처럼 되라는 말씀을 내 마음 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와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난날 아내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으로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여~. 사랑합니다. 나의 김소영님~.

아내에게 쓴 편지로 인해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며 과거의 불행했던 시간들을 이제는 버리고 가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을 만들어 가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학교도 어느덧 중반을 넘겨 3주차가 되었고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였던가? 내가 아이들에게 너무 소홀하지는 않았나? 내가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강요만 한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명령하듯 행동하지는 않았나?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먼저 아이들의 눈높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에서 보듬어 주고 사랑해 주고 잘못해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니 내가 지금까지 너무 부족한 아버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한다. 나의 민섭~, 사랑한다. 나의 정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에 아빠 엄마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금 고맙게 생각 한단다. 아버지학교의 교육도 어느덧 4주차로 접어들었고 아버지의 영성이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를 따르며 가정에 축복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서하고, 기뻐 하며 기도가 충만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내 몸이 작은 빛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사라질 때 까지도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다.

이제 아버지 학교의 5주차 교육, 세족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족식으로 인해서 아내의 힘들었던 지난날을 다 씻어 주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으로 아내의 힘들고, 고통이었던 지난 과거를 씻겨 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리라!’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발을 씻겨 주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서 오열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합니다. 나의 아내여~, 사랑합니다. 나의 아내여~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으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여 이 못난 남편을 사랑해 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영국 체험기

해가 지지않는 나라

영국을 체험하며...

지난해 여름방학 중 7.13~7.31이 기간동안
토요학교 영어 수강생들을
위하여 영국체험의 시간이 있었다.
영국을 다녀 온 학생들 중
일부의 영국체험의
감상문을 싣는다.



즐겁고 좋은 기회인 영국 여행 안 혜 은
깨달음의 시간을 준 영국 여행 정 혜 연
즐거웠던 영국 여행 차 유 빈
짧지만 보람찬 여행, 영국 최 한 나



즐겁고 좋은 기회인 영국 여행

안혜은

영 국을 갔다니 미국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영국도 미국과 거의 다 비슷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레지 않았고 걱정도 되지 않았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잠이 덜 깨서 그런지도 모르겠다. 다 걱정되지 않았었는데 한 가지, 바로 혜연이 언니, 한나 언니, 유빈이 언니, 정원이 오빠, 현지 언니 그리고 이우진.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낼지가 걱정이다.

양 전도사님 댁에 도착하니 밤이었다. 그나라는 해가 잘 지지 않는 더니 사실인가 보다. 아침에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중 한가지인 Q·T를 캠프에서 먼저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했었다. 그 때가 영국에서는 토요일이었다. 일요일 우리는 교회를 가기 전에 에든버러 관광을 했었는데 그중 '바비'라는 개가 14년 동안 주인의 무덤을 지켰다는 유명한 개와 그 개 주인의 묘지를 방문했었다. 그리고 신앙유적지를 방문하였는데, 감옥이 16개였다. 갇혔던 사람들의 감옥은 신앙을 포기하고 언제라도 나가려면 나가라는 뜻으로 지붕이 없었다. 그렇지만 있었던 사람들은 그려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만약 그런 처지가 되었다면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지, 포기하지 않고 있지 못할 것 같다.

주일에는 에든버러에 있는 로스 채플이란 한인 교회에 갔었다. 영국은 모든 교회의 2시가 첫 예배라서 2시가 되기 전에는 시내 관광을 하고 2시에 교회에 갔다. 비록 2일만 있었는데 교회에 가서 한국인들을 많이 보니 우린 모두 반가워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Faith Mission 캠프에 들어갔었다. 활동을 잉글랜드(England-2번째 캠프)보다 많이

한 에든버러 캠프가 재미있었고 선생님도 아이들도 더 친절하고 좋았다. Sarah가 제일 친한 친구였고 Rebecca도 친했었는데 Sarah의 언니였다. 두 캠프 모두 1번씩은 실내 놀이터를 갔었다. 제일 즐겁고 무섭기도 한 것은 바로 거의 직선으로 내려가는 슬라이드였다. 그걸 타면 처음에 약간 뜬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너무 짧다는 것이다. 캠프는 무엇보다 엄청 많이 재미있었다. 두 캠프 다 수련회 같았지만, 더 신앙적이었던 것 같다. 매일 아침과 밤에 Quiet Time(큐티)을 하고, 오전과 저녁에는 -Meeting 아님-Prime Time이라고 예배드리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매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잉글랜드 캠프가 마저 끝나고 우리는 사파리에 갔었다. 조금 작은 놀이공원에서도 토큰(Token)을 내고 놀이기구도 타고 게임도 했다. 점심에는 그릴에다 소시지와 삼겹살 비슷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런데 관광하고 지내다 보니 우리나라와 많은 차이점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모두 다 신호등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면 조금 있다가 건널 수 있었고, 차 운전석 위치도 달랐다.

날씨도 우리가 영국에 있을 때에는 한국은 엄청 더웠을 텐데 거기는 얇은 재킷 하나라도 걸쳐야 될 조금 쌀쌀한 날씨였다. 그리고 마냥 똑같은 언어를 쓴다고 미국과 영국이 거의 다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단어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몇 개가 다르고 발음도 약간씩 달랐다. 박물관도 많이 갔었는데 에든버러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이 조금 재미있었다. 대형 박물관에는 판매하는 관람

책 중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 뿐만하였다. 그리고 보니 대영 박물관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보였었다. 또한 미술관도 많이 갔었다. 에든버러에서 탑을 올라갔는데 동그란 계단을 무수히 많이 올라갔다. 조금 좁아 불편했지만 올라가는 것이 재미있었고 흥미로웠다. 또 런던에서 배를 타고 그 유명하다는 타워 브리지

(Tower Bridge)도 보았고 빅벤도 보았다. 아쉽게도 런던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런던 아이(London Eye)는 타보지 못하였다. 런던 아이는 놀이기구인데 동그랗게 생겨 돌아가는 것이다. 또 길가에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층 버스이다. 타보긴 타보았는데, 2층에 천장이 없는 것은 타보지 못하였다.

여왕이 살고 있는 곳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밖에서 보았다.

아주 컸다. 앞에 군사 한 명이 똑바로 계속 서 있었는데 다리가 아프면 군인처럼 걷고 다시 똑바로 서 있다. 아주 힘들 것 같다. 만약 화장실을 가고 싶다면 어떡해야 할까? 갔다가 돌아올 동안 다른 군사가 지키고 있을까 궁금하다.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어떨 때에는 내가 배려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같이 잘 생활해야 할지 조금 더 알게 되었다. 엄마와 아빠가 항상 있어주지 않을 때의 불편함과 같이 생활할 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데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나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깊게 깨달았다. 무엇보다 신비하였던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보고 그 나라에서 생활과 체험을 해 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기쁘다. 원래 목적은 어학연수(?)라고



했는데 즐거운 여행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게 영국을 잘 갔다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영국을 갔다 와서 지식도 많이 풍부해 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좋은 것으로 꽉 채워 진 것 갔다. 무엇보다 즐겁게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이 아주 즐겁고 좋은 기회라는 걸 깨달았다. 영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다음에 또 가보았으면 좋겠다. ☺

깨달음의 시간을 준 영국 여행

정혜연

영

국은 참 좋은 나라였다. 우리나라라는 여왕도 없고 왕도 없는데 그곳은 여왕이 있어서 부러웠다. 우리나라로 일본만 없었으면 왕이 있었을 텐데…….

그곳은 인구는 별로 없고 땅이 넓어서 웬지 집이 더 화려하다.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든 주택 집이다. 나도 주택 집에서 살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해 봤다. 영국에서 선물을 많이 사 가지고 싶었는데 물가가 너무 비싸서 잘 사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정말로 기분이 조금 나빴다.

영국의 성은 아름답고 멋지다. 우리나라로 영국처럼 성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럼 사람들이 만지지 않아 훼손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영국, 미국, 프랑스처럼 강대국이 될 수는 없을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구 전체가 다 잘 먹고 살려면 지구 7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우리나라로 잘 살아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보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도 영국처럼 자연을 깨끗이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영국은 물이 너무나도 깨끗해서 수돗물도 직접 먹는데 우리는 먹지 못한다. 우리가 강물을 더럽게 쓰고 그러기 때문이다. 정수기를 사다가 세척해서 먹고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는 물이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다.

영국이 큰 나라인 것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로 언젠가는 크게 발전해서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낭비태도는 싫다. 가령 중학생들도 시험만 끝나면 쇼핑하러 가며 낭비를 한다. 돈을 소중히 생각하고 아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심한 낭비를 하지 않는 나라가 되길 소망한다. 이번 영국 여행을 통해 자연의 깨끗함과 절약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영

국여행을 가면서 영국도 그래봤자 미국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영국에 가보니 영국은 그런 곳이 아니었다.

모두 자기만의 독특한 성향이 있었다. 우선 그 곳의 문화재에 대해 소개해 보겠다.

첫 번째로 구경을 간 곳은 로얄 마일이었다. 그 곳은 그냥 거리였다. 처음에는 겨우 이게 문화재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한 에든버러의 교회를 들어가자 내 생각은 곧 바뀌었다. 돌로 정교하게 다듬어 놓았고, 그 곳의 수많은 스테인드글라스도 보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정교하고 멋있었다. 그 내부의 각 귀족들이 앉았던 자리와 여왕의 옥좌는 역시 멋있었다. 특히 여왕의 것은 다른 것에 비해 근엄해 보였다.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른 풍이였다. 에든버러 성에 가서는 그 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밑에 펼쳐진 풍경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 되었다. 스코트 모니먼트를 보고는 저 정도면 별로 높지도 않다면 큰소리를 뻣뻣 치다가

즐거웠던 영국 여행

차 유 빈

막상 올라갈 때는 그 원형계단을 올라가는 게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중간 중간에 계속 쉬면서 가던 게 지금 생각하면 그저 웃기기만 하다. 영국 남자의 전통 복장이 치마라서 웃겼는데 막상 진짜로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많이 웃겼다. 대신 영국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영복을 많이 입는 모습을 보니 애국심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처럼 민족의 비극을 잘 경험하지 못해서 나라의 소중함을 잘 알 것 같지는 않다.

제일 기대하고 걱정했던 것은 캠프였다. 직접 말을 걸어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힘들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한 일이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국말을 쓰면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계속 쳐다보았다. 자꾸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졌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을 보면 그렇게 사람차별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캠프는 확실히 수련회와는 달랐다. 자유 시간에는 특별히 마련 된 체육관에 가서 놀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함께 있으면서 생활해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 밥을 다섯 끼씩 먹어서 언제나 배가 불렀다. 예배 시간이 지루해서 잔적도 있었다. 정신 차리고 부터는 예배시간에 열심히 집중해서 들었더니 확실히 이해도 잘 돼서 나중에는 모범생으로 뽑히기도 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 그런데 친구들과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려면 이메일을 다 알아내야 하는데 이 곳 친구들은 대부분 이메일이 없고 있는 사람도 주소를 모르는 바람에 별로 알아내고 싶지 않았던 선생님 주소까지 알아내야 했

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인이라고 인종 차별을 당한 적이 있었다. 한번은 애든버러에서 우리가 캠프에서 놀러간 한 실내놀이터의 농구장에 가서 놀고 있는데 남자 아이들 몇몇이 자꾸 우리가 여기 있는다고 공으로 우리를 세게 맞히고는 자꾸 도망갔다. 다른 외국인 아이들은 그만하라고 하면 다 그만하는데 우리가 그만하라고 하면 계속했다. 자기네 나라를 망신 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말 불쾌했다. 함께 있었던 다른 한국인 친구들도 기분이 나빠졌다. 그 일 때문에 잉글랜드는 정말 나쁜 나라로 인식되었다. 나도 앞으로 외국인을 보면 친절하게는 못 대해주더라도 나쁘게 대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나니 여러 가지를 배웠다. 우선 영어를 더욱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조금 더 용기를 길러야겠다. 만약 내가 조금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젠가는 또 영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 때는 전에 웠었던 기억을 떠올리고 더욱 좋은 여행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 아쉬웠던 점은 영국 사람들이 한국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인물이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도록 해야겠다.



짧지만 보람찬 영국여행

최한나

처

음으로 국외 여행을 하는 것이라서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 외국인과 우리는 사뭇 다를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영어를 학원이나 집에서 달달 외우며 선생님을 따라하는 것과는 더더욱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걱정도 많았었다.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이다. 걱정도 하고, 기대도 하면서 국외로 나가, 즐겁게 생활하고 난 기분을……. 어렸을 때 제주도를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 본 이후로는 처음 탄다. 그래서 여행엔 완전 초보다. 하지만 할 수 있다고 다짐했기에 즐겁게 여행을 떠났다.

저녁 9시경, 난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에든버러에서 제일 즐거웠던 것은, 즐거운 캠프와 에든버러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관광이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를 꼽으라면 관광이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관광지와 유물이 있듯이, 에든버러에도 많은 관광지가 있었다. 그 중 에든버러의 성이 마음에 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서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에든버러 성이 900년 전쯤에 지어졌으며, 성을 지은 주재료가 돌이라서 1000년 이상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다. 우리나라 도돌로 궁궐을 지었다면, 오래 보존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궁전은 우리나라 궁전답게 나무로 우리나라 특유의 미를 살린 것 같다.

두 번째 이유로는 에든버러 성에는 시간을 알려주는 유명한 대포가 있다. 매일(일요일 제외) 대포를 쏘는데, 1시에 울린다고 한다. 아쉽게도 대포가 울리는 소리는 못 들었지만, 다음에 영국에 왔을 때는 꼭 듣고 싶다. 에든버러 성을 보고 나서 스코틀랜드 국립미술관에 잠깐 들렀는데, 그림 대부분이 유명 화가들 것이다. (렘브란트, 모네, 고흐, 쇠라, 벨라스케스(스페인 화가), 고갱 등…….)

또 하나, 오늘의 볼거리였던 로얄 마일은 관광지 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에든버러 성에

서 홀리루드 궁전으로 연결된, 에든버러에서 가장 오래된 자갈이 깔린 길을 말한다고 한다. 그 다음 볼거리였던 스코트 모니몬트 탑은, 내가 머물렀던 점 근처에 있었다. 그 탑은 굉장히 높았다. 그 곳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에든버러의 시내가 다 보인다. 그 풍경은 에든버러 성에서 본 에든버러와 견줄 수 있을 것이다. 스코트 모니몬트 탑은, 스콧 기념탑이라고도 한다. 보통 기념탑이라고 하면 그냥 높이 솟은 별다른 장식이 없는 탑형식인 것에 비해서, 스콧 기념탑은 화려한 고딕양식(중세후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중세 양식)으로 제작된 교회의 첨탑같이 아름다운 장식을 지니고 있었다.

관광을 하고 나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은 꼭 캠프에 들어간다. 캠프는 우리가 영국에 온 주 목적이기도 하다. 캠프는 아무래도 프로그램과 친구들과의 협동심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야외놀이와 도움이 된 아침, 저녁의 공과 공부시간 등…….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을 뽑자면, 야외놀이를 한 것이었다. 외국 아이들과 같이 땀 흘리면서 게임을 하고 같이 어떤 일을 하게 되니까, 어색했던 사이가 더욱 좋아지고, 친해지게 됐다. 또 외국친구들이 나에게 고맙게도 자주 말을 걸어준다. 그럴 때 외국 친구들이 자주 묻는 질문 best1은 “Where are you from?”이다. 내가 대답을 해주면, 아~그렇구나. 뭐 그런 말만 한다. 영국 애들은 우리나라를 대체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런 나라가 있구나!” 하고는 신경을 쓰지 않는 애들이 많았다. 하긴, 한국에서 영국까지는 꽤 먼 거리니까. 다음에 내가 이곳에 또 오면 애들은 한국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을까? 여하튼 간에 보람찬 여행이었다. 나중에, 영어 실력을 더 키워서 이곳에 오면 외국아이들과 부담 없이 말하고 싶다. 아무래도 한번 외국인들을 봤으니까 앞으로 부담감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와보고 싶다. 그리고 좀 더 폭넓게 영국을 둘러보고 싶다. ☩

삼행시 짓기 대회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가는 백년, 오는 천년’이라는 주제아래 왕십리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삼행시 짓기 대회를 1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와 출판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왕십리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였다. ‘왕십리’, ‘백주년’, ‘출애굽’, ‘새성전’, ‘뉴타운’ 등의 삼행시를 가지고 150여명의 성도가 250편의 삼행시를 제출하였고, 6분의 심사위원들의 3차에 걸친 심사에 의해 1등 1명, 2등 2명, 3등 5명, 가작 15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1. 김예진(유년부)

- 뉴** 뉴타운이 만들어질 때 많은
타 타인들이 기뻐합니다. 뉴타운이 만들어지는 건
운 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수상

1. 이영순 집사

- 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타 타 교회보다 사랑이 넘치는 왕십리교회로 오시면
운 운명이 바뀝니다.

2. 김연순 권사(백봉)

- 새** 새롭게 우뚝 설 교회 천년의 역사를 이루리
성 성스럽고 아름다운 천년을 바라보자
전 전진 또 전진 천년의 역사를...

장 려 상

1. 안형렬집사(장년 1부)

- 출** 출발 명령이 떨어졌으니
- 애**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 굽** 굽혔던 허리를 평고 '쿰' 일어나 나가자.

2. 이순덕집사(영아부)

- 뉴** 뉴 타운의 중심에 우뚝 선 왕십리교회
- 타** 타락한 미혹의 영들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향해
- 운** 운동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 운동을

3. 김학선 권사(마장사군)

- 백** 백발이 웬말이요
- 주**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데
- 년** 년 수를 자랑 말고 기름 준비 잘하세요

4. 윤대성(고등부)

- 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 애**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면 언제나
- 굽** 굽어 살펴주시죠.

5. 김정음(고등부)

- 출** 출출할 때는 라면 한 그릇
- 애** 애달플 때는 찬양 한 곡
- 굽** 굽이굽이 인생이 꼬일 때는 기도 한 번

사 랑 상

1. 이창로(중등부)

- 새** 새 술은 새 부대에
- 성**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전** 전신갑주를 입고 새 성전 건축하세

2. 이성영 장로

- 새**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 성** 성스럽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원합니다
- 전** 전능하신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3. 차유현(유년부)

- 새** 새로운
- 성** 성도들을
- 전** 전도하러 갔다.

4. 윤흥규집사

- 새** 새벽 닭 우는 소리에 깨어 일어나
- 성** 성전으로 향하는 왕십리교회 성도들
- 전** 전능하신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5. 이정옥 권사

- 출** 출애굽의 믿음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 애** 애쓰고 힘쓰며 봉사하는 형제자매들이여
- 굽**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성령이
넘쳐흐르리.

6. 김춘임 권사(하왕 4)

- 출 출산 중의 산모 심정
- 애 애끓는 선교정신
- 굽 굽이치는 이방 전도

7. 권정준(청년부)

- 새 새벽을 여는 12지파 새벽 부흥회
- 성 성도 여러분!
- 전 전 교인이 참석하시여 목사님을 통해 치유의 은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8. 이윤재(청년부)

- 새 새롭게 열어가는 왕십리 뉴타운 시대에
- 성 성공한 왕십리 교회는 비결이 있습니다.
- 전 전도입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전도!

9. 임주희(유년부)

- 백 백주년 기념일
- 주 주님께서 축복하시네
- 년 년도가 바뀌면 우리 교회 백주년 기념일

10. 장지은 집사(드보라)

- 왕 왕십리 터 위에 100년의 역사를 가진 왕십리 교회
- 십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이웃에게 전하며
- 리 리(L)isten to the voice of God!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십리 교회 성도들이 됩시다.

11. 오경희 권사(방배)

- 뉴 뉴타운 시대에 적극적 협조하여
- 타 타오르는 불길 같이 힘을 모아
- 운 운명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기쁘게 살자.

12. 김순옥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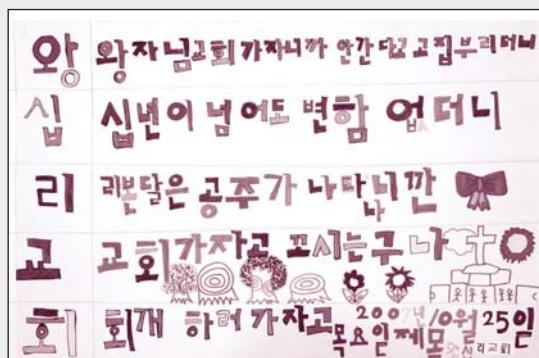
- 백 백배, 육십 배, 삼십 배 결실을 맺겠습니다.
- 주 주인님 맡겨만 주십시오.
- 년 년(연)약한 제가 심겠습니다.

13. 박영희 권사()

- 출 출세가 탁 트여도
- 애 애타게 찾을 것은 오직 예수그리스도
- 굽 굽혀 경배할 분도 예수그리스도

14. 박윤서(사랑부 고1)

- 왕 왕의 왕되신 주님
- 십 십년전에 못믿었는데
- 리 이제 믿습니다.



북방에서 부는 주님의 바람

김남수 · 김수경 선교사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정착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아내 이수경 선교사 그리고 소담, 예담, 한결이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잘 적응하며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저와 가정 그리고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돋고 있는 모든 선교 동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블라디보스토크]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는 이제 러시아 동부 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섬기는 벨리까야베라 교회 ✚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는 6년 전에 우종철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러시아 현지인 교회입니다. 현재 우선교사님은 안식년으로 미국에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분의 전도사님과 한 분의 통역사역자가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약 50명의 현지인들이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1호 결혼주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의 첫 번째 결혼주례가 러시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선족인 이 게나지 형제와 러시아인 리자자매의 결혼식이 거행되었고 제가 기쁨으로 주례를 서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이 러시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신앙심이 있는 형제인지라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자매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축복해주세요. 덕분에 맛있는 중국요리를 배불리 먹어 봤네요. 러시아에서 먹어보는 중국음식!!! 기대 하셔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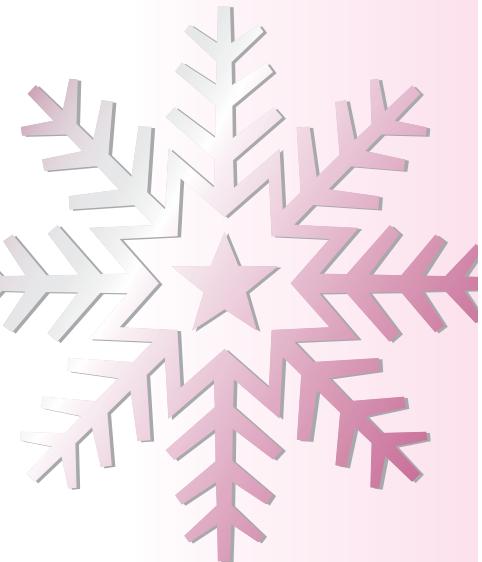
✚ 극동대학교에서 러시아어 연수 ✚

역사적 의미가 남다른 이곳 블라디보스토크에는 해야 할 사역들이 너무 많지만 현재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언어를 배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않



다면 앞으로의 사역이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러시아 현지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기에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급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아내는 기초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부하는 극동대학교는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는 가장 유명하며 수준이 있는 대학으로 약 60여명의 한국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들을 돋는 사역자가 없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방황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돋는 사역도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되며 만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역할을 확대하려고기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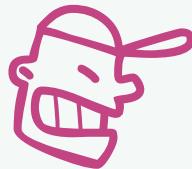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일본인과 중국자매 그리고 한국인 2명]

✚ 기도해주세요 ✚

- ①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 ② 파송과 후원교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이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③ 주님의 마음으로 러시아와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④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⑤ 러시아 언어의 진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주세요.
- ⑥ 좋은 동역자를 만나 형통한 삶과 사역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⑦ 우리 가정이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해주세요.
- ⑧ 지속적으로 비자문제와 거주등록문제가 평안히 해결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⑨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고 순결하게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한 아이



한기영 집사/장년 1부

오래 전에 이 책을 읽었었다. 그 땐 한 아이 1편만 나왔을 때였다. 내가 막연히 기억하고 있었던 내용은 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였고 너무나 어린나이에 심한 성폭행을 당했고 또 높은 아이큐의 비범한 아이였다는 것뿐이었다. 다시 읽어보니 그것이 주가 아니었는데… 그 당시 난 아이의 특별함에만 더 끌렸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지금은 아이의 입장에서 접근하려 한다. 글을 쓰려니 부담이 엄뚱한 데서 온다. 내가 쉴라의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이와 같은 끔찍한 가정환경도, 상황도 겪어본적이 없고 더욱 아이큐가 180이나 되는 비범한 아이가 나와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가정할 때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고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마약이나 술에 일찌감치 중독되지 않고 꾱꿋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섯살 때 만났던 토리선생님과의 5개월간의 생활때문이었을까?

네 살때 엄마로부터 고속도로에서 벼림받고 마약중독자인 아버지의 매질속에 제대로 된 보살핌 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던 쉴라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토리선생님반에 들어가게 된다. 벼려지고 거부당했던 쉴라는 적대감과 반사회적인 생각으로 세상과 담을 쌓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자존심을 지켜왔지만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며 처음으로 수용해주는 토리선생님을 통해 사랑을 알아가고 자존감을 갖게된다. 난생처

음 맺는 사람과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어린왕자〉를 통해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쉴라. 비록 여섯 살의 어린 아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구를 가진 한 인격체로서 회복해 나간다. 마침내 이별을 앞두고 쉴라는 토리선생님에게 묻는다. “선생님이 옆에 있으면 난 좋아질텐데, 왜 못그려겠다는 거죠?” “널 좋게 만드는건 내가 아니라 너니까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건 네가 올바르게 사는지 안사는지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였어, 네 생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단다. 난 어딜 가나 너한테 관심을 둘거야.” -바로 이 대화를 통해 앞서 내가 던진 질문이 해답을 얻는 듯하다.- 사람은, 매를 맞을 때 아파서 우는 줄로만 알았던 쉴라는 선생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서로에게 길들여진(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도 훌릴줄 알게 된다. 2편에서 쉴라는 토리와의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더 힘들게 느껴졌었다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불우한 처지를 극복하고 상처를 딛고 스스로 삶을 건설적으로 추스려나가는데 기본적인 토양이 되지 않았나 싶다. 1편에서 토리선생님을 통해 세상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열었다면 2편에선 쉴라의 인생에서 엄마든 토리선생님으로부터든 결코 무시 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을 받았지만 그러한 것을 소화해내고 자신의 인생으로 스스로 승화시켜 내는 것은 쉴라 스스로의 끓이라는 것이고 쉴라는 치열하게 그것을 해



냈다는 것이다. 정말 감동적이다. 물론 쉴라는 아이큐 180의 특별한 아이다. 하지만 지능이 높다고 그와 같은 환경에서 쉴라처럼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일궈낼순 없다. 만약 그랬다면 이 책이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처럼 특별한 감동을 주지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아이 엄마 인지라 최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려고 급급했던 터에 이 책을 읽고 솔직히 충격을 받았다. 그 아이의 정말 열악한 최악의 환경에 놀라고 선생님의 지도방침에 놀라고 그로 인해 그처럼 성공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결과에 놀랐다. 쉴라의 환경을 개선해주지 못하고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확신대로 마침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힘을 보여주었다는 점 -그 과정이야 정말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연속적인 싸움이였고 상처치유과정이었지만-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회복력을 포함해서)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솔직히 나는 이 책을 읽으며 아! 정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구나 스스로 창조원 형태로 복구하려는 의지와 힘이 무의식중에도 분명히 있구나. 자연 치유력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가 어릴수록 더 단순하고 투명해서 그 원초적인 본능(사랑받기 원하며 행복을 추구하는)과 욕구에 더 충실하지 않았나 싶다. 물론 그 기반이 되어준 것은 토리선생님의 절제된 사랑이었다고 생각한다. 옆에서 애정을 가지고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처음엔 그 사랑을 엄마로부터 못받은 사랑과 혼동하여 선생님을 엄마와 오비랩하여 기억하긴 했지만- 선생님과의 행복했던 기억이 현실을 더 불행하게, 견딜수없게 느껴

지도록 만들자 방어기제로 쉴라는 그 기억조차 애써 잊어버리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산없는 선생님의 사랑으로 쉴라는 모든 것을 정면돌파하여 하나하나 상처를 꺼내 씨름하며 이겨나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이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지경에까지 자신을 내몰정도로 힘겨웠지만 마침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데 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일궈나간다. 솔직히 내 아이는 쉴라와 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겪지않고 살았으면 싶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운 삶의 한 과정을 겪고 있을 때 토리선생님처럼 그 아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지지해주며 정말 성숙한 엄마의 모습으로 곁에서 지켜봐주고 싶다. 때로는 그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해주는 것보다 아이 스스로 씨름하며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봐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힘겨울지도 말이다.

사족: 1편에서 선생님과의 이별을 잘 받아들이고 헤어진줄 알았던 쉴라는 그뒤 선생님을 자신을 버린 엄마와 혼동하여 기억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린다. 힘들 때 눈물을 흘리지않음으로 자신을 방어했던 쉴라는 이제 행복했던 기억을 지워버림으로 자신을 방어해왔다. 7년 후 토리선생님과 재회하게된 쉴라는 감동적이었던 1편의 결말에 친물을 확 끼얹는 듯 첫장을 시작했지만 역시 감동적인 결말을 맷으며 마지막 장을 덮게 만들었다. 토리선생님의 솔직함에 그리고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쉴라는 역시 멋진 주인공이다. ☩



유기농 제품을 취급하는 친환경 먹거리 쇼핑안내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변 곳곳에 유기농 제품 판매처들이 생기고 있다. 유기농 상점들은 일반 슈퍼마켓처럼 판매만 하는 곳도 있고, 생산자조합과 함께 생산지 방문과 같은 여러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유기농 제품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슈퍼마켓 개념의 유기농 마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단순한 판매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주는 비영리 단체들도 생기고 있다. ‘한 살림’이나 ‘성남 주민 생협’, ‘여성민우회 생협’, ‘한국 생협 연대’와 같은 곳은 회원 가입 시 출자금과 가입비를 받고, 주문 시에도 약간의 출자금을 받는다. 이 돈은 적립되어 생산자 지원을 위해 쓰인다. 출자금은 비영리법인이 생산자 지원을 위해 받고 있는 지원금으로 보면 된다. 주로 생산자 물품 구입비나 활동비로 사용된다. 이러한 비영리 단체는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문화를 만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이력이 물품에 담겨 있어 어느 곳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조합원 활동과 상관없이 슈퍼마켓 형식으로 판매하는 유기농 마트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일반 대형 마트에도 유기농 제품 코너가 들어서고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는 유기농 상품 상점들이 생기고 있는데, 오프라인 상점보다 다양한 상품 구색을 갖추고 있다. 수입되는 유기농 면제품과 아토피 피부용



제품, 친환경 기저귀, 친환경 장남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유기농 판매처를 이용할 때는 생산자 정보나 제품의 정보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필수이다.

유기농 마트이지만 모든 제품이 유기농은 아니기 때문이다. 저농약상품, 무농약상품, 유기농상품 마크가 상품마다 표시되어 있다. 가공식품인 경우 첨가물에 대한 정보와 생산지 및 생산자 정보까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친환경 유기농 제품 판매처 소개

비영리 단체

한 살림: www.hansalim.co.kr (02-3498-3600)

성남 주민 생협: www.jucoop.com (031-715-6122)

여성민우회 생협: www.miwooocoop.or.kr (02-581-1675)

한국 생협 연대: www.icoop.or.kr (032-663-2295)

유기농슈퍼

초록마을: www.hanifood.co.kr (080-023-0023)

두레마을: www.doree114.com (02-597-2295)

유기농 신시: www.shinsi.com (02-2068-6432)

인터넷 슈퍼

오가닉스몰: www.organicsmall.co.kr

농군마을: www.canaarmal.com

에브리데이 그린: www.everydaygreen.co.kr

더오가닉코튼: www.ocotton.co.kr

오가닉 스토어: organics.co.kr

올가: www.hegaon.com

해가온 유기농하우스: www.hegaon.com

유기사랑: www.61love.co.kr



첫 째 주간

사도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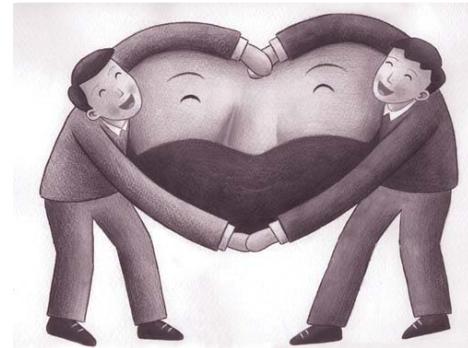
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28장/구28장)

말씀 : 민 6:24~25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기도문

제사장의 3대 축복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축복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견뎌 주시도록 서로를 축복해야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라는 말씀으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선물이며 인생을 향하신

자비와 궁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서로에게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말씀으로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심으로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의 결론이며 요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활을 인도해 주시도록 서로에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범사에 평강을 주시도록 서로를 축복함으로써 주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너 성결 키 위해(420장/구212장)

말씀 : 출 19: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찌니라

주기도문

성경은 성도의 구별된 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벧전1:15)

또한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 5:3)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주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사회의 미래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성결치 못하고 온갖 잘못된 것에 휩쓸리면 자신과 사회의 미래는 암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개인과 자녀의 성결 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성결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엡 4:24)고 했습니다.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도 그의 소유된 백성”(벧전2:9)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자신만이 성결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성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의 교육은 자녀가 성장하여 사회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성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유혹이라든가 시

성결의 중요성



험에서 자신을 지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결하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합니다.

2. 준비된 그릇으로 성장시킴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부터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산다면 이를 본 자녀가 성장해서 어떻게 귀히 쓰임을 받겠습니까? 자녀에게 성결의 본을 보이고, 성결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바른 준비를시키는 길입니다.

성경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 29:15)고 했습니다. 성결하고 준비된 자녀로 키우기 위해 부모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결해지지 않는 자녀는 결코 준비된 그릇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약 3:17)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온갖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자신과 함께 자녀의 성결 교육에 힘써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 구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

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주의 말씀 듣고서(204장/구379장)

말씀 : 신 4:40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주기도문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이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 상속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장구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이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순종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겨난 민족이요,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의의 칼날로만 심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들 중에 살아남아 있을 자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성하는 축복



2. 약속을 믿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너무도 당연한 도리를 행한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기만 하면 그들로 강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장구히 살게 하실 뿐 아니라 특별한 보호와 풍성한 소출과 번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진정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마치 운동 경기자가 예비된 상을 위하여 진력하듯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 받고 광야에서 연단 받은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

넷

째 주간

사도신경

찬송 : 눈을 들어 산을 보니(383장/구433장)

말씀 :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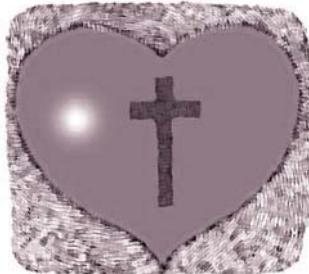
주기도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무조건 많은 현금을 요구하시고 끊임없이 봉사를 종용하시는 폭군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실 자녀가 불행해지고 항상 빈핍하고 고통스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저주와 형벌을 받고 노예와 같이 신음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자녀들이 당신 안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같은 복을 허락하시는 대신 당신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1.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당신을 경외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경외’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한 마디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거룩하시고 엄위하신 주권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이 가지는 자연스럽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두려움 없이 오만 방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복의 축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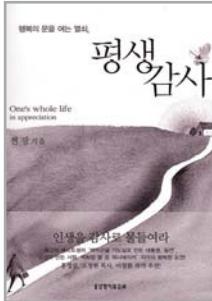
무시하는 크나큰 죄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참된 지식과 지혜를 공급하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인격적으로 온 삶을 통한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혼후되지 않으며 찰라적이고 물질적인 풍요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온갖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에게는 고통과 절망과 탄식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며 어떤 희생을 치뤄서라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려 합니다. 그러나 행복에 이르는 올바른 길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冊 이랑 樂



평생감사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베스트셀러 작가 전광 목사가 일상의 소소한 감사 제목들을 작은 노트에 기록해 가며 느낀 감동과 도전을 ‘평생 감사’에 담아냈다. 엄청나게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취급받는 ‘감사’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예화들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본문 내용을 잘 표현한 일러스트를 통해 보는 즐거움을 더했으며, 독자 스스로 감사 제목을 떠올리고 기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두었다. 한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다.

· 저자 : 전광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 가격 : 10,000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 책은 마케팅 교회의 모습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비판하며 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기업 경영의 핵심 중 하나인 ‘마케팅 논리’가 현재의 우리 교회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놀라게 된다. 오늘날 교회의 설교와 전도, 예배와 찬양의 현실 속에 마케팅 기법이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책이다.

· 저자 : 옥성호 · 출판사 : 부흥과개혁사 · 가격 : 16,000원

노아네집 크리스마스 (2CD)

이 음반의 부제는 ‘‘산타만 있던 크리스마스 NO!!! 오직 예수님만 있는 크리스마스’’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와 울동(혹은 댄스)이 두 장의 CD에 담겨 있다.

· 가수 : 노아 · 기획 / 배급 : SIS기획 / 오케이씨씨엠 · 가격 : 11,000원



송영주 Jazz meets Christmas (CD)

작년부터 재즈찬양연주 음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송영주가 귀에 익숙한 크리스마스 찬양을 따뜻한 느낌의 재즈 스타일로 편곡하여 우리에게 다시 다가온다.

· 가수 : 송영주 · 기획 / 배급 : COOL SPRINGS MUSIC / 인피니스 · 가격 : 11,000원



씨씨엠 클래식 Christmas Gift (CD)

작년에 발매되어 사랑을 받았던 4부 할창의 크리스마스 음반이다. 할창으로 불리는 성탄음악으로 따뜻하고 기쁜 성탄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가수 : 클래식콰이어 · 기획 / 배급 : Bee Company / Bee Company · 가격 : 10,000원



2007년도 왕십리교회 10대뉴스



다사다난했던 왕십리교회, 교인들

지난 한 해도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았다.

한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본 교회 교인들은 이 많은 행사들 중에 과연 어떤 행사를 큰 행사라고 생각하는지 본지에서는 우선 10가지를 선정해 교인들의 의견을 모았다.

교인들이 주일날 한 번씩 들리시는 이웃봉사관의 식당유리 벽면에 왕십리교회 올해 10대뉴스로 선정된 10가지 행사의 사진과 내용을 정리해서 게시하고 스티커를 비치했다. 정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11월 3주 주일동안에 이웃 봉사관에서 진행된 성도들의 공개 투표를 접두한 결과 ▶

1.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	67표	6. 새성전 비전 경진대회	34표
2. 사랑마을 토요학교 개강	65표	7. 난계로 사랑 나눔 바자회	33표
3. 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대거 선출	38표	8. 교회 설립 99주년 기념예배	32표
4. 지상 최대의 선교 토크쇼	37표	9. 장애우 설립예배	31표
5. 대부흥 가을 난지 사경회	36표	10. 성경 개역개정판으로 전환	29표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를 가장 큰 비중 있는 행사로 선택(67표)했으며, ‘사랑마을 토요학교’ 개강을 두 번째로 선택(65표)함으로써 교인들의 높은 교육열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중직자 선출’(38표)에 높은 관심을 표현했다.

지난해 유례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뤄져 ‘지상 최대 선교 토크쇼’(37표)를 개최할 수 있었다. 선교사들의 어려움, 은혜로운 순간들 등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잘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대부흥 가을 난지 사경회’(36표)와 ‘새 성전 비전경진대회’(34표), ‘난계로 사랑 나눔 바자회’(33표), ‘교회 설립 99주년 기념예배’(32표), ‘장애인 사랑부 설립예배’(31표)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마지막으로 ‘성경 개역개정판으로 전환’(29표)한 일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많은 행사를 정리하며 느낀 점은 과거에 비해 교인들이 교회의 크고 작은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모습이다. 평양 대부흥 100주년 행사만 해도 노란 옷을 입고 장애우들을 도우며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지정된 장소를 가득 메운 모습은 은혜로웠다.

올해에는 본 교회 100주년 기념해이다. 아울러 더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다. 작년보다 더 많은 교인들의 참여가 기대 된다.



제 2 교육실행위원회

장년1부 송년모임

지난 12월 31일 유치부 예배실에서 장년1부 송년 모임이 열렸다. 일찍 온 사람들을 위해 영화상영이 있었고, 셀프로 미리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이어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고, 플로잉을 통해 서로에게 사랑을 전

달했다. 특별히 2008년 새롭게 수고할 노원길 부장 장로와 양 흥섭 차장 집사에 대한 환영도 있었다. 2008년 장년1부 말씀을 선택하여 한 해 기도제목으로 삼는 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박병수 기자

사회봉사위원회

태안반도 지원봉사 활동

2007년 12월 29일, 본 교회 200여 성도가 태안반도 기름유출 현장 지원봉사에 참여하였다. 새벽 6시에 출발하여 태안군 파도리에 도착. 눈이 내리는 매서운 추위와 악조건 속에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바위의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성도들은 기름으로 얼룩진 바다와 해변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

실 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태안 앞바다를 찬양으로 물들였다. 8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곤히 잠든 모습이었다. 하루종일 추운 곳에서의 힘든 일로 고단한 몸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태안군 파도리에 전하고 온 성도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 보다 더 따뜻했다.

문승환 기자

제 1 교육실행위원회

고등부 겨울수련회

고등부(부장 신동훈 장로, 지도 김석호 강도사)는 지난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백봉산 기도원에서 40여명의 학생과 10여명의 교사들이 모여 2008년 고등부 겨울수련회를 ‘모든 신령한 복’이란 주제로 개최하였다.

개·폐회 예배, 그룹 성경공부(GBS), 저녁 부흥 집회등을 통해 ‘에베소서’ 전체 본문을 살피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김석호 강도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지금 이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낮시간에는 레크리에이션, 성경 퀴즈 대회 등 친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련회의 백미 ‘조별 장기 자랑’에서는 6개 팀이 참여하여 예년 보다 더 기발한 아이디어와 연습으로 왕성도 높은 연출들을 선보였다.

특히 이번 수련회는 예년과는 달리 1,2,3학년 학생들의 고른 참여를 나타내었고, 작년의 기도원 개보수 공사로 인해 샤워 시설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급식도 권사님 두분이 지원봉사를 해주셔서 어느 때 보다 더욱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를 발판 삼아 올 한해 고등부의 부흥을 기대해 본다.

장숙현 기자

제 1 교육실행위원회

중등부 수련회

지난 1월 18~19일 백봉산 기도원에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었다. 선생님들이 준비한 공동체 훈련을 통하여 신입생들과 서로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저녁에는 부정과 긍정이라는 주제의 설교를 통해 사탄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하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성경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딤후 3:1-2) 나를 부인 해야한다는 것을 배웠고(마16:24) 죄악된 나를 미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진 42 왕십리

정한 긍정임을 배우고 우리도 갈렙과 여호수아와 골리앗 앞의 다윗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긍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였다.

비록 1박 2일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기억에는 과자 따먹기, 닭 쌈, 눈 썰매등의 즐거운 시간은 오래 오래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식사를 위해 섭겨주신 어머니들의 사랑과 선생님들의 헌신과 집회 시간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만지심이 더 기억에 남는 따뜻한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장가람 전도사(중등부 지도)

화보로 보는 이모저모



- ㄱ. 아브라함 전도회 창립총회
- ㄴ. 크리스마스 촛불의 밤 행사
- ㄷ. 사랑의 네트워크로 방문한 구룡마을
- ㄹ. 태안반도 기름유출 지원봉사활동
- ㅁ. 고등부 수련회
- ㅂ. 유아세례식 후 기념촬영
- ㅅ. 중등부 수련회 식사시간에 봉사하는 학부모 집사님들과 배식중인 중등부
- ㅇ. 사랑부 크리스마스 기념예배
- ㅈ. 이웃봉사관 1층에 사랑까페 오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예배안내 및 성경공부 안내

▶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부 : 오전 7시 30분
- 2부 : 오전 9시
- 3부 : 오전 11시
- 4부 : 오후 1시
- 백봉산 예배
- 주일 찬양 예배
- 몽골어 예배 / 중국어 예배 : 오후 2시

수요 예배

- 1부 : 오전 10시 30분
- 2부 : 동절기 오후 7시 00분
하절기 오후 7시 30분
- 새벽 기도회 1부 매일 새벽 5시
- 새벽 기도회 2부 매일 새벽 6시
-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 주일 학교 안내

- | | |
|----------------|--------|
| • 영아부 | 오전 11시 |
| • 유치부 | 오전 11시 |
| • 유년·초등·중등·고등부 | 오전 9시 |
| • 청년부(주일 4부) | 오후 1시 |

▶ 성경공부안내

- 새신자 7주 공부 : 각 예배 후
- 장년 2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1부 성경공부 : 오후 1시 30분
- 장년 3부 성경공부 : 오전 10시